전국 민주진보교육감 공동선언

입시경쟁 넘어 공교육 대전환

서울 광화문광장서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
특목고 폐지 통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핵심 과제로
공동 실천과제는 공교육 정상화·대학 균형발전 등
천호성 후보 "전북, 수도권 주변에 머물러선 안돼"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진보교육감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15개 시·도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과 함께 교육대전환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이날 후보들은 공동공약을 통해 "입시 중심 경쟁교육을 넘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발달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2030년까지 수능과 내신의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목적고 폐지를 통한 고교 서열화 해소, 대학 서열 구조 완화, 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주의·인권·생태전환·AI 리터러시를 포함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입시 경쟁교육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대학 서열체제 개선과 지역대학 균형 발전 △고교 평준화 내실화 △교육주체 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교육복지 확대 및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동 실천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들은 "교육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며 "학교는 경쟁과 서열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중심 구조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진정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공동선언 취지에 공감하며 전북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이 수도권 중심 교육체제의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배우고, 경쟁이 아닌 성장으로 평가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공약의 방향을 전북교육 현실에 맞게 실천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함께 참석해 교육대전환 공동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오상근 기자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진보교육감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 존중 교육 실현 적임자"

한노총 전북,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지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선언에는 5만 조합원이 뜻을 함께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단순한 교육행정 책임자 선출이 아닌, 전북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으로 규정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편법이 아닌 정직을 가르치고, 경쟁이 아닌 성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전북교육 상황에 대해 "교육의 정체와 학력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념 중심이 아닌 실용적이고 공정한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남호 예비후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노동 존중 실천 사례도 주요 지지 이유로 제시됐다. 이남호 예비후보가 전북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청소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118명(총 2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을 들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노동 존중을 입증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 노동자 임금 문제 개선,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 현안 정책 공약도 높이 평가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교육 현장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이남호 예비후보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의지와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5만 조합원의 역량을 모아 전북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정직과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개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멀티 LLM 생성형 AI 서비스 '빠른 확산'

본 서비스 개시 한달만에 사용자 6600명 돌파 '높은 활용도'
시범사업 만족도 높아… 이용자 98% "서비스 계속 이용 희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의 멀티 LLM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가 캠퍼스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 개시 한달 만에 사용자가 6,600명을 돌파하는 등 대학 구성원 전반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대는 대학 구성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과 AI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범사업 결과 사용자의 98%가 서비스 지속 제공을 희망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전체 이용자가 6,645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학생이 5,486명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교수 545명, 직원 및 조교 614명 등 대학 구성원 전반에서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현황 분석결과 학생 중심의 활용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량의 85% 이상을 학생이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학습과 과제 수행, 자료 조사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생성형 AI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가 제공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모델(LLM)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LLM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목적에 따라 최적의 AI 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 고급 검색, 코드 작성 및 분석, 다국어 번역, 데이터 처리,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과 프로젝트 설계, 자료 조사, 진로 및 학습 상담 등 학습 전반에서 AI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교수들은 강의자료 제작과 평가 문항 설계 등 교육 활동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직원들 역시 문서 작성과 회의록 정리, 각종 안내문 제작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 조교 등 전 구성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별이용권(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완주교육지원청, '우리고장 완주사랑 프로젝트'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은 지역 이해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우리고장 완주사랑 프로젝트' 마을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7월까지 이어지며, 완주지역 초·중학교 21개교 학생과 교사 약 700여 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경험으로 확장하게 된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학생 주도의 체험 중심 탐구학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및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생활 중심 학습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6개 코스를 7개 코스로 확대했다. 오전 코스는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송광사, 위봉산성, 웅치·이치 전적지, 고산향교, 초남이성지, 되재성당, 독립운동추모공원 등 역사·문화 중심 답사로 구성됐다.

오후에는 대승한지마을 한지 만들기, 삼례문화예술촌 체험, 떡 만들기, 창포마을 비누 만들기, 콩쥐팥쥐마을 부채 만들기, 인덕마을 쿠키 만들기, 경천애인마을 체험 등 지역 마을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운영된다.

현장에 참여한 한 교사는 "지역에서 생활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지역화 교육의 의미를 다시 체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민 교육장은 "학생들이 마을을 배우고 사랑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유성동 "단일화 과정 정치적 거래 없었다"

"악의적 왜곡 강력 대응"

유성동 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단일화 및 정책 연대 과정의 '정치적 거래 의혹'에 대해 "천호성 후보와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 전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저와 천호성 후보 사이의 정책 연대와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적인 대화가 본질과 다르게 왜곡되고 이용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통화 및 만남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5일 관련 통화가 있었고, 6일 저녁 9시 이남호 예비후보와 독대를 진행했으며 이후 이남호 후보 측 인물과 두 차례 추가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예비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한 것은 천호성 후보 측이 아니라 이남호 후보 측이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또한 그는 "만약 천호성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교육계를 떠나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책임까지 언급했다.

유 전 예비후보는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교육감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신속한 진실 규명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정책 중심의 선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정치적 거래 제안 의혹? 허위사실 아냐"

이남호 선대위, 천호성·유성동 주장 정면 반박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유성동 전 예비후보가 제기한 '정치적 거래 제안' 의혹에 대해 "단 1%의 진실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선대위는 해당 의혹을 "천호성·유성동 측의 허위폭로이자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유성동 전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 음해"라며 "자신들의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한 비열한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수사와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문제의 만남과 관련해 "당시 자리에서는 전북교육의 방향과 도덕적 원칙 등 교육적 명분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어떠한 직책 제안이나 대가 약속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남호 예비후보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교육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제3자 인물에 대해서도 선대위는 "당일 처음 만난 인물로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이며, 캠프와도 무관한 사람"이라며 "정치적 거래를 제안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녹취록 관련 의혹에 대해 "전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짜깁기해 왜곡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도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원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씨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일부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갈라치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남호 후보는 교육의 원칙과 공정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 공립중 최초 IB 후보학교 승인

전주덕일중, 전북서 25번째

전주덕일중학교(교장 이경희)가 국제 바칼로레아(IB)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전주덕일중이 전주 지역 공립 중학교 가운데 최초로 IB 후보학교에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25번째라고 밝혔다.

IB 후보학교 승인은 학교의 교육철학과 수업·평가 체계, 교원 전문성, 학교 공동체의 실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이번 승인은 전주덕일중이 추진해 온 교육과정 혁신과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덕일중은 그동안 학생 중심 수업 확대,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논·서술형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혁신학교, 혁신더하기학교, 전북미래학교 등을 운영하며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영어수업 사례 공유

영어 담당 교사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초등 영어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6년 초등 영어교육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영어 공교육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14개 시·군 초등학교 영어 담당 교사 3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생 중심 영어 수업 확산과 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연수가 아닌 교사 간 실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초등 영어교육 정책 방향 안내와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글로벌 문화 특화 수업(Project BTS: Bring The World to School) 소개가 포함됐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직접 운영한 다양한 수업 모델이 공유됐다.

대표 사례로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 교사의 협력 수업(Co-teaching), 영어 독서를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 수업, 수행 중심 평가(GRASPS) 기반 수업,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 등이 소개됐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청렴 체감도 제고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26년 학교운동부 청렴체감도 제고 방안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점검·지원이 결합된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총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계한 '청렴 추진체'를 가동하고, 모든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 운영의 취약점을 보완한다.

또한 학부모가 운동부 회계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알리미' 앱을 통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의견 수렴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청렴도 우수 학교에는 훈련용품 및 특별훈련비를 지원하는 '청렴성장 지원사업'을 신설해 자발적인 청렴 문화를 유도한다.

감시 및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QR코드를 활용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비위 신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긴급 청렴대응단'을 운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